

비씨·국민카드사의 신용카드 조회사업 진출철회

우리협회는 지난 2월 14일 재정경제원, 정보통신부등에 「비씨·국민카드사의 신용카드 조회사업 진출에 따른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국내 유수 카드회사들이 연합하여 직접시장 참여를 시도하고 있어 중소기업사들의 시장도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공정경쟁환경하에서 중소기업들이 건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 편집자주 -

건의배경

- 최근 시중은행들의 공동 출자회사인 BC카드(주)와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국민신용카드(주)가 연합하여 신용카드조회 서비스 시장 침입을 준비중이며 '95. 2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94년 11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국내 신용카드조회 서비스시장은 현재 한국정보통신(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부가통신(주), 한국신용평가(주) 등 4개 중소기업체가 나누어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들 4개 중소기업체들은 87년 7월부터 국내 신용카드조회 서비스 시장창출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므로써 이제 국내의 카드조회 시장은 본격적인 활성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투자회수에는 앞으로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이들 신용카드조회 사업자들은 BC, 국민, 외환등 국내 카드사와 네트워크 구축 및 가맹점관리, 단말기의 개발보급 및 유지보수, 저렴한 수수료와 사고피해 보상책임, 고객정보의 일방적 제공등의 불공정 계약을 감수하면서 시장개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이제 지배적 위치에 있던 국내 유수의 카드회사들이 연합하여 직접 시장 참

여를 시도하고 있어 이로 인해 기존 중소기업체의 시장도태 및 파산이 예상되는 바 다음과 같은 기업윤리와 경제정의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즉각 중단토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정부에 건의드립니다.

문제점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 약탈의 우려
- 카드발행 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카드조회회사는(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업무위탁 계약의 쌍방인 “갑”과 “을”로서 “을”이 “갑”에게 수직적으로 종속된 관계
 - “을”은 “갑”으로부터 정액제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 단말기보급·유지보수, 조회를 위한 System, NetWork 구축운영, 사고시 배상책임, 기술 및 신규부가서비스 개발에 대한 사전협의, 기타 “갑”의 요청에 대한 협조등 의무를 짐.
- 카드조회사는 카드사의 사전 승낙없이 신규서비스 제공, 업무방법변경등이 불가
- 카드사는 조회 회사의 고객정보를 모두 알고 있으며 조회회사는 카드사의 협조 없이는 신규가맹점 정보를 입수키 어려움.

위와 같은 실정에서 국내 전체시장의 65%(비씨 : 45%, 국민 : 20%)를 점유하고 있는 카드사가 직접 자사의 카드 조회를 처리할 경우, 기존업체는 대부분의 시장을 잃게 될 것임. 더구나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한 대출, 수수료감액, 대금지급기일 단축등의 조건을 내세울 경우 기존 조회사의 고객이 일시에 이탈할 것이 우려됨.

내부 보조에 의한 불공정 경쟁 및 시장 교란 우려

- 국내 2대 카드사가 연합하여 카드조회사업에 나설 경우 초기 시장 점유 및 고객확보를 위해서는 가맹점에 대한 가격 차별화, 인센티브 제공, 기타 은행대출등 특별한 편의 제공을 그 수단으로 할 것이 예상되는 바,
- BC카드 · 국민카드는 각각 13개, 6개은행을 회원으로 하는 카드사로서 조회 사업진출시 초기시장 점유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련 은행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조받게 될 것이 확실한 바

이는 전형적인 Drive-out 정책의 표본으로서 내부 보조에 의한 불공정 경쟁으로 기존 영세 업체들의 존립기반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임.

- * 이 분야 세계 최대의 기업인 MASTER CARD사에서 자사 브랜드인 MAESTRO 사용조건으로 국내 은행에 단말기 1대당 24만원, 기존카드 교체 비용의 50%보조 그 밖에 각종 광고, 홍보비 지원을 한다고 알려져 있음. 관련 종사자들은 그 액수가 100억원에 이를 것이고 그 돈은 카드사들의 조회사업에 대한 내부 보조비용회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기존 영세업체들의 투자회수 불가능

- 기존 4개 업체는 그 동안 은행 · 카드사의 요구사항(처리시간 단축, 시스템 확장 및 폭주업무처리, 무장애 시스템 운영 등)을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회사 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선행투자를 해 왔고, 조회사업의 발전을 위해 장기 회수 방침 아래 원가이하의 요금을 받으며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카드사의 조회사업 진출에 따라 투자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중 중복 투자로 인한 국가 자원 낭비 우려

- 세계적으로 카드사가 조회업무를 직접하는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자생적인 국내 조회업체들이 구축해 놓은 조회 시스템은 장래 수요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세계 우수 VISA, MASTER등의 국내 조회시장 진출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조회시장에 카드사가 추가진입하는 것은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자원의 낭비로 사료됨.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정면 위배

- '95. 2. 9. 대통령께서는 신경제 추진 회의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대기업이 여러분야 업종에 진출하는 선단식 기업경영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설 땅을 좁아지게 해서는 안된다.

라고 강조한 바,

- 이러한 정부정책 방향에서 볼 때, 카드사의 조회시장 진출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사료됨.

건의

- 위에 열거한 작금의 국내 신용카드조회서비스 사업실태와 업체의 사정을 감안하시어

- BC, 국민카드사가 조회사업 진출계획을 철회하고 본연의 사업을 영위토록 하여 주시고
- 공정한 경쟁환경의 바탕위에서 중소기업체들이 건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정책적 배려

있으시길 건의드리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제정의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